

새 책

▶동물은 나의 선생님(노정래 지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인 우리나라 첫 동물행동학자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동화다. 늙은 코끼리의 인생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코끼리 무리부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공동체를 이뤄가는 벌 삼총사까지 여덟 마리의 동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가치를 일깨운다.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지식도 쉽고 생생하게 풀어냈다. 마음이음. 1만2000원.

▶아, 제주다(김미희 지음, 설씨 그림)= 제주 우도에서 태어나 시와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가 펴낸 동시집이다. 제주의 문화와 역사, 지리, 사회 등 다양한 애깃거리를 한 줄 한 줄 풀어냈다. 그 곁에 제주에서 나온 자란 화가가 해녀, 꽃자왈, 올레길 등 조화로운 그림을 얹었다. '제주도 여행'을 큰 주제로 엮은 제주로의 유쾌한 초대다. 국민서관. 1만2000원.

▶알바 엠타러(문부일 지음)=유명 가게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알바생이 된 도운, 과의 선생님에게 공모전 글을 빼앗겨 버린 탁오, 낡은 집을 팔고 아파트 입주를 꿈꾸는 루오네 가족. 제주 출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풍경을 엮담한다. 학벌 사회, 성적 조작,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담아내며 그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애기를 슬프면서도 웃기게 그렸다. 마음이음. 1만2000원.

▶로메리고 주식회사(최영 지음)=일곱번째 수림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등단작이다. 9년간 사법고시 공부를 했지만 실패를 맞은 주인공 이정우가 선택의 추천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처음 배당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 흐름을 따라 현실과 초현실을 분주히 오가며,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괴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낸다. 광화문글방. 1만3000원.

▶아버지와 아들(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 지음, 진형준 옮김)=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가 우여곡절 끝에 농노제를 폐기하기 바로 2년 전인 1859년으로 들어간다. 국민 대다수가 농노였기에 농노제 폐지는 국가의 틀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 소설은 역사적 변화기에 더 심해지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에 바짝 다가선다. 변혁기를 사는 인간과 그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며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살림. 1만1000원.

▶그 아이가 절대 궁금하지 않아(정선임 지음)= 북한에 그리운 친구들과 엄마의 무덤을 두고 온 준, 엄마의 재혼으로 성이 바뀐 보라. 보라는 준과의 만남을 통해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일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며 꿈을 키운다. 준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아픔은 북 이탈 주민을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풀빛미디어. 1만2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식민과 분단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강상중 등 편저 '재일 1세의 기억'

한국·조선인 1세 50여명
가혹한 역사 생생한 육성

"내가 마흔한 살 때,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고기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해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박승자 할머니를 인터뷰한 해는 2007년 12월. 제주자치도가 출범한 직후였지만 그는 출생지를 '제주도 북제주군'으로 기억했다. 1922년 3월, 여덟 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그는 열세살 때 오사카로 건너갔다. '메리야스' 공장에서 일하다 제주로 돌아와 열여덟 살에 결혼한 뒤 스물한 살때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해방 직전에 고향으로 왔지만 4·3을 피해 오사카로 도망갔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 일을 했다.

지나온 생을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하는 재일1세가 비단 그뿐일까. 조선과 일본을 넘나들었던 그들의 몸에는 가혹한 역사의 무늬가 새

겨져있다. 유랑과 이산, 차별과 빈곤, 해방과 분단 등을 살아내야 했던 그들의 지난 시절을 떠올려 보시라.

일본 게이오대학 오구마 에이치 교수와 재일2세인 도쿄대 강상중 명예교수가 편저를 맡은 '재일 1세의 기억'엔 그들의 육성이 담겼다. 민족수난의 시기에 이국땅에서 생을 견뎌온 재일 한국·조선인 1세의 생생한 체험을 담아놓았다. 기록자들이 만난 재일1세는 50명이 넘는다. 취재일, 출생지, 현주소, 생년월일, 약력 소개에 이어 그들이 저마다 들려주는 사연이 펼쳐진다. 제주에서 태어났거나 제주와 인연이 있는 인물도 들어 있다. 양의현(영화로 만들어진 해녀의 반평생), 김웅해(민족학급과 함께한 36년), 김시종(조선 현대사를 산 시인), 고태성(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민족학교 교사로), 한재숙(영혼의 숨결, 음악을 만나다), 고기수(한글소프트 개발의 선각자) 등이다.

일본 사회의 이방인이었던 재일



1세와 달리 3~4세는 언어·문화적으로 일본인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국적법이 남녀양계주의로 변하면서 재일 6~7세가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재일'은 일본 내 차별의 대상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 말한다. 강상중은 재일 1세의 증언을 두고 "쓸모없는 잡담과 정반대되는 생명의 언어가 깃들어 있다"며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역사의 일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총서로 고민정·고경순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도서출판문. 3만5000원. 진선회기자

“남북 간 상호인정, 이 한마디면 끝나요”

유시민·도올 대담 ‘... 통일, 청춘을 말하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2007년 이루어진 10·4 남북정상선언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다. 12년 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나왔지만 남북의 정상은 '수시로' 만나지 못했다.

'유시민과 도올 통일, 청춘을 말하다'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발판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철학적 진단과 전망, 해석을 담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통일을 말하라!'란 이름으로 지난 10월 4일 유시민이 묻고 철학자 도올 김용옥이 답했던 대담 내용을 재구성해 문자로 옮겼다.

시종 유쾌했던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통일의

불씨를 지피자는 거였다. 현재 색깔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중국·일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청춘들에게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올은 이 자리에서 원효대사의 일심이문(一心二門) 사상을 통일 신라의 통일비전으로 소개하고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취했다. 그는 원효의 일심을 갈라진 민족의 하나됨을 향한 그리움으로 읽었다. 일심의 그릇에 담아야 하는 건 다름 아닌 남북 간 상호 인정이다. 도올은 남북의 선언문을 넘어 이제



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도 인정이라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아! 남북의 문제를 접근하는 유일한 열쇠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연방제·연합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인정 Recognition, 인정! 바로 인정 Mutual Recognition이지요!" 통나무. 1만5000원.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사할린 잔류자들'



일본명 다케나가 히데오인 김수진 집안의 사람들. 일본, 한국, 러시아로 확대된 생활 공간을 보여준다.

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18세기 이후 동진하던 러시아와 북쪽의 위협에 눈을 돌리던 일본은 1855년 시모다 조약을 체결했다. 이 때 사할린을 양국의 공유지로 정했지만 20년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 전체를 러시아가 영유한다. 1904~1905년 러일전쟁 뒤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조인되

자 사할린 북부는 러시아로 돌려주고, 일본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쪽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일본은 가라후토라는 지명으로 사할린섬 남부를 통치하면서 임업과 석탄업으로 기간산업을 정비했다. 노동력을 확보하려 일본 본토 농촌이나 홋카이도 탄광은 물론이고 제국 일본의 동원에 의해 조선인 노동자까지 불러온다.

제주출신 현무암, 러시아 태생 파이차 제 스베를라나가 공저하고 일본 고토 하루키의 사진이 더해진 '사할린 잔류자들'. 사할린을 배경으로 조선, 한국, 일본, 러시아의 틈새에서 살아온 열 가족의 사연을 싣고 있다.

노동자 모집에 지원해 사할린까지 다다른 일본명 다케나가 히데오 김수진, 조선인 남편과 2000년 하코다테에 정착한 단나카 아키코, 임시 귀국을 위해 얼굴도 모르던 친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았던 스고 켄이치, 남편의 성을 따라 최요시로 살았고 이혼 후 혼자서 다섯 딸을 키웠던 이시이 요시... 어느덧 4대까지 이른 다국적·다언어의 이들 가족은 1990년대 이후 자식이나 손주 세대를 동반하거나 초청해 일본에 정착한다. 아니면 부부만 일본으로 영주 귀국해 사할린이나 인천 등을 왕래하며 지내고 있다. 반면 '벚꽃방'에서 점자책을 읽으며 세상과 만나는 한국 이름 김영자, 요시코처럼 사할린을 떠나지 않는 이도 보인다.

'트랜스내셔널'한 이들에게 남은 남은 행복뿐만이 아니라 차별은 견고하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단일한 문화나 언어로 수렴되지 않는 이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낯설기 때문이다. 희망은 있다. 일본에 귀국한 가와세 요네코의 손녀 알리나와 알리사. 러시아어 구사에 자부심이 있고 일본어에 능숙하며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언니 알리나는 자신을 한국인이거나 러시아인,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답을 내놓는다. "나는 다면체랍니다.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달라요." 서재길 옮김. 책과함께. 1만5000원. 진선회기자

축

취 임

제23대 한국수산업양기술학회 회장

김 석 중

(제주대학교 어로학과 16기 졸업)
(현,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제23대 한국수산업양기술학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산업경찰(어로)학과 16기 일동

축

수 훈

동탐산업훈장

고 영 철

(쌍용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주항만물류협회 회장)

제33회 육운의 날 동탐산업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항만물류협회 회원사일동

축

수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김 학 중

(본협의회 회장)

제20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농협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일동

축

서 훈

산업포장

김 명 훈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회장)

산업포장 서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